

# ‘ESG 경영기구’ 신설...사회공헌 나서는 혁신도시 기관들

### 한전KDN, 위원회 출범...공공기관 첫 협력사 ESG 지원 협약 aT, CEO 자문위원회 개최...경영전략·사업추진에 반영 예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 기구를 잇따라 만들어내고 있다.

22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이날 들어 한전KDN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 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한전KDN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나주 본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한전KDN ESG위원회는 지난 4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내 독립기구로 공식 신설됐다. 고희주 이사를 위원장으로, 김성호·한상민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ESG경영 전략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한전KDN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E), 따뜻한 ICT기술(S), 신뢰받는(G) 한전KDN’을 새롭게 ESG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소배출 저감 등 10대 추구가치와 3대 중장기 목표 및 전략방향, 11개 주요 전략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표적인 ESG전략 실행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플랫폼 개발 및 투자 ▲중소기업 및 협력사 ESG지원 사업추진 ▲비

상임이사 중심 ESG위원회운영 및 관리 ▲직원 참여 한전KDN-에코 라이프 실천 등이 있다.

한전KDN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지원사업을 발의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전KDN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한전KDN은 앞으로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펼친다.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ESG 인증취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장현 사장은 “ESG 지속가능경영은 포스트 코로 나시대를 넘어 핵심적인 기업생존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동반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8일 서



지난 18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경영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춘진(오른쪽 네번째) 사장이 환경경영의 의미를 담은 위촉 화분을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했다. <aT 제공>

울 aT센터에서 제1회 ESG경영 CEO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며, 위원회에는 학계·국제기구·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문위는 공사가 고유사업을 통해 ESG 부분별 사회적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앞으로 경영전략뿐 아니라 실무 자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

출된 의견은 부문별 추진부서의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4월 ‘aT ESG경영 선포식’을 열어 ESG 경영 추진전략을 선포했다.

선포식에서 ▲(E·환경경영)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S·사회적책임) 농어민과 만드는 국민 행복먹거리 ▲(G·지배구조)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사를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3월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애(愛) 그린 가치 2030’을 내건 경영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한국전력은 지난 1월 제1차 ESG 위원회를 열고 기구 출범을 알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ESG 평가항목을 신규 도입해 최근 국내주식형 위탁운용기관 9곳을 선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살맛나는 농촌공간계획,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 농어촌공사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를 한다.

농촌계획대전은 “다양한 가치의 농촌 재생”을 주제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난개발로 인한 농촌 경관의 훼손,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농촌 마을을 일터와 쉼터, 살터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농촌건축대전은 ‘농촌 지역거점 커뮤니티센터 설계’를 주제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거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와 주변 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을 담으면 된다.

계획대전은 다음 달 23일까지, 건축대전은 2일까지 접수한다.

계획대전은 농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건축대전은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의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과 일반인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모전별로 대상, 우수상 등 각 7점을 선정, 총 2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9월2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차장·편의시설 무료로 이용하세요”

### 16개 이전기관 체육시설 등 개방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의 ‘공공자원 시설개방 현황’을 공개했다.

주차장을 일부 또는 전면 개방하는 기관은 10곳이었다.

한국전력은 나주에 등지를 뜬 지난 2014년 11월부터 주차장 888면 가운데 682면을 개방하고 있다.

전력그룹사인 한전KPS(562면 중 191면)와 한국전력거래소(215면 중 70면)도 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70면 전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71면 중 171면), 한국콘텐츠진흥원(109면 전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12면 전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3면 중 96면), 한국인터넷진흥원(230면 중 215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54면 전부) 등도 주차장 개방에 동참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과 체육시설, 식당 등이 있다.

한전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대강당과 소강당, 농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전KDN은 어린이도서관과 대강당, 족구장이 개방됐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는 142실을 갖춘 숙사와 식당을 쓸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콘진원,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모집

### 7개 플랫폼기관별 교육생 선발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1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접목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이다. 음악·공연, 게임, 웹툰, 스토리 등 프로젝트를 진행할 7개 플랫폼기관을 선정했다.

기관별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활용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플랫폼(주식회사 투스퀘어) ▲인

공지능 기술 기반 비주얼 휴먼 활용 메타버스 실감 콘서트(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기반 메타 퍼포먼스와 초학제 융합예술(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모집은 1차로 오는 25일까지 주식회사 투스퀘어와 주식회사 포자랩스에서, 2차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그 외 5개 플랫폼 기관에서 진행되며 기관별 20명 내외 교육생이 선발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콘진원 및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파진흥원, ICT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나선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업무협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ICT 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분야의 국가 지식 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ICT 분야 R&D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연구, 디지털 미디어 분야 지식재산권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방송콘텐츠 포맷 저작권과 창작자 권리 확보를 위한 연구,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등 상호 교류 및 협력이다. 양 기관은 인적·물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합니다

-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 H. 010-2928-0202

## 지리산, 시세 30억, 토지

- ▶ 임야 / 전 / 답 등 16,513㎡(구 5,000P), 계획관리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8억 6,000만원 승계 가능자 문의 . 010-3605-5000